

2018년 11월 8일, 제주시 월평동 월평동경로당, 이현정 조사.

김양언(남, 1940년생, 제주시 월평동)

- 제주시 월평동(다라콧)에서 출생, 월평동에서 11대를 살아오다가 4·3사건 때 제주시 화북동으로 피난하여 6년 간 거주하였다. 1954년 고향 마을이 재건된 뒤 돌아와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 줄거리: 제주시 월평(다라콧)에는 문수렝이 산터라 불리는 곳이 있다. 문수렝이는 목사의 하인이었는데, 목사는 지관으로 제주도의 명당을 찾으러 밤에 몰래 다녔다고 한다. 문수렝이는 목사를 몰래 따라다니다 목사가 발견한 명당터를 알게 되었다. 이를 알아차린 목사가 문수렝이가 이곳을 알아버린 이상 이 명당은 문수렝이의 땅이라 하고, 그 장소에 조상의 묘를 쓰되 삼 년을 몸 조심하라고 일러 주었다. 문수렝이는 명당에 묘를 쓰자 날개가 돌고 용술을 부리게 되었다. 그런데 문수렝이는 목사의 충고를 무시하고 장안을 활보하고 다녔다. 문수렝이의 잘못으로 결국 묘는 파헤쳐지게 되었는데, 시체가 소가 되어서 앞발은 끓고 뒷발은 일어나 있는 형국이었다. 이를 알게된 제주 도민들이 나무를 한 짐씩 가져와 그 묘를 태워버리고 말았다. 그 뒤로 문수렝이의 산터는 불이 나서 타게 된 장소란 의미로 불칸데라 불렸다.

[조사자] 불칸터렌 헤가지고 얘기 잊우과?

[제보자] 불칸터라는 건……. 건 그건 한라산에 불칸데라고 헌 말이어요. 건 한라산이고.

[조사자] 한라산, 한라산을 불칸데라고 협니까?

[제보자] 예.

[조사자] 게믄 마을에 관련해가지고 재미난 얘기…….

[제보자] 마을에 관련해가지고 불칸데 말을 나왓으니까. 우리 그디 그 묘도 쓰고 뭐하고 헛는데. 그 무슨 그 저 때에 이디 목사가 왕 살았는데. 그 땅을 막 신안으로 헤서 밤이 가서 보고 혔다. 그 문수렝이라는 사름이. 거 문수렝이터 문수렝이터 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목사에 비서라낫는데. 그걸 자꾸 쫓아 가명 보고 보고 허다가. 이제 그디 가기 전에 목사가 그 자리를 발견뒈여 버리니까.

“아, 이젠 내 찍시가 아니다.”

해서 그 문수렝이란 사름안티 묘를 쓰라고 헤 낫다는 거예요. 그디에서. 묘를 썼다가. 써서. 그 사름이 쪼끔 활공부를 쯤 헛다고 허든가. 그 뭐 날아댕김도 헛다는 거예요. 말로 전허는 건. 날개 들려가지고 하천 쪽을 착 용술로 넘어간다는

거죠. 한 이삼메타는 착 그냥 날려서, 거니까 그거 해서 막 뭘 허니까. 이제 그 사름이 막 용술을 부려가지고 하도 허니까. 장안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 땅을 왜 불칸데로 헛느냐는 그 뜻이나 마찬가지.

그 묘가 뭐

“뭐 멧 년, 삼 년만 춤으라.”

고 하던가

“멧 년을 춤아서 가만히 잊어야 됨다.”

고 헌디 그렇게 안허니까. 그 활공부를 잘허여도 허연 뎅겨노니까. 그 땅에 강 보니까. 그 묘를 일련 보니까. 그 시체가 소가 뒤여서 앞발은 꿀려 잊고 뒷발은 일어사 잊어 낫다 해서, 이제 제주 도민이 전부 그 그걸 나무를 한 짚씩 헤 오라고 해서, 막 불테와 낫다고 해서, 불칸데라는 별명이 지왓다는 거죠.

원래는 문수렝이 산턴디. 그 산 뭇자리를 막 불태와 불엇다고 해서 불칸데. 그런 전설이 잇곡. 경해도 지금도 거기 묘가 한 이삼십 년 전에는, 우리 한라산에 다닐 적에는 잊어낫는다. 지금은 그 후손덜이 이장해 가 불엇는지 뭐햇는지는 모르겠어요.

[조사자] 목사가 데리고 다니다가 산터가 좋양…….

[제보자] 아, 겨난 목사가 그냥 가그네에 허면은, 어떻게든지 쫓아가가지고. 자기 혼자 목사만 갖는디도 그 사름이 그 좀 뭐헌 공부를 허니까. 헨 막 허니까 발각뒈 버리니까.

“자기 땅이 아니다.”

해서 그 목사 이제 그 사람에게 묘를 쓰는데

“삼 년을 꼭 참양 방에만 잊어야 됨다.”

고 헤엿는데. 그추룩 안해서 아주 나쁜 짓을 행, 막 저 용술을 행 뎅겨 부니까. 그 뜻이 다 헤여서 그디 이제 산을 팡 보니까. 뭐 앞발, 뭐 벌겅한 숫송아지가 앞발은 꿀려 잊곡 뒷발은 서 잊었다가 쪼끔만 더 춤았이며는, 거 일어상 나와 버리며는 뭐 그 사름이 아주 출세를 헐 건디 못 헤엿다. 뭐 요런 전설 쪽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주 명랑하다고 해서 그디 막 도민이 그 자리를 막 해서 불테와 불엇는데도, 그 자리에 가 또 산, 묘를 하나 써 잊단 말이여. 두 개 써 잊는 걸 봐어, 우리. 그 묘는 파 불엇주만, 딴 사름. 그런 뜻이요 불칸데라는 뜻은.

- 핵심어: 불칸데(불탄곳), 문수렝이, 목사, 묘, 용술, 소문, 불, 뭇자리(뭣자리), 소